



도-남원시-동신산업(주) MOU 전북도는 7일 남원시와 함께 김종훈 경제부지사, 오윤식 동신산업(주) 대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신산업(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도>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첫발...도민 열정·연대 담다

시군별 주민과 따뜻한 마음...간절한 도민 염원 전달 김관영 지사, 전북만의 차별화된 올림픽 비전 발표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 위한 충분한 역량·가능성 입증

전북 도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체육 영웅들의 참여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걸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현장평가에서는 도민 3,000여 명이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전북의 문화적 매력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PT 도지사'로 불리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전 브리핑 발표자로 나서며, 현장평가 일정을 모두 함께하는 등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 도민들은 현장평가단이 방문한 주요 시설마다 환영 퍼포먼스와 응원으로 올림픽 유치 염원을 전했다. 새만금 33센터(6일)에서는 500여 명의 주민이 응원 타울과 환영 깃발을 흔들며 평가위원들을 맞이했고,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인 전북 출신 체육 영웅과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올림픽 상

징 목도리를 걸어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군산CC에서는 주민 900여 명의 환영 인파와 함께 가야금·대금·해금 3중주 공연이 펼쳐졌으며, 전주 월드컵경기장(7일)에서는 노상놀이 공연과 500여 명의 환영 인파가 함께했다.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에서는 취타대 퍼레이드와 700여 명의 열띤 응원이 이어졌으며,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와 600여 명의 주민이 태권도 시범과 응원으로 평가위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직접 PT 발표로 나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을 유치했던 만큼, 이번에도 올림픽 유치를 성공할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관영 지사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지방도시 연대 ▲K-컬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 유치 비전과 당위성, 레거시 기대효과, 도민의 염원을 강조했다. 전북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비전으로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을 설정하고, 천년고도 전북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조화를 이뤄 세계를 맞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지방도시 연대 전략은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올림픽 어젠다 2020'의 핵심 전략인 비용효율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장은 기존 시설(22개소)과 임시 시설(11개소)의 활용률을 극대화해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인 전북은 친환경 '그린 올림픽'을 목표로 자원 순환과 녹색 소비, 무공해 수송체계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준호 기자

도, 환경·산림 6개 특례사업 가속화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③ 환경·산림 분야 특례]
 산림복지지구·자연휴양림 지정 등 6개 특례사업 시동
 도립·군립공원 친환경 관광 개발 시범사업도 추진
 규제완화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환점 마련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을 기반으로 환경·산림 분야 6개 특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양과 환경영향평가 특례 시행 등 독자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해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는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순창 용골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

됐다. 용골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있어 숲속야영장, 치유센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산림복지시설을 집적화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산림복지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 이양 또한 전주 도심권 지방정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개발에 힘을 실어준다. 도는 산림문화, 휴양, 복지 특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와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연계한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친환경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도립·군립공원은 매년 6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할 만큼 풍부한 경관과 생태, 역

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로 관광 개발 등이 제한돼 지역상권 침체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2개소가 지정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해당 공원 지역을 관광, 힐링, 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 조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 특례로는 정읍시가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른 시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내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구·단지 내 사업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국회 '내란 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7명 증인 채택

여야,尹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 추후 협의 내란특위 청문회·현장 조사 일정 조율 중 177명 증인 채택 완료...청문회·현장조사 일정 확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따라 추후 재 논의하기로 했다. 채택된 증인 중 국무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군 인사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광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

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 22일과 2월 4일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특위는 오는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야는 청문회에 출석할 일반 증인 채택과 현장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희망찬 새해, 부안군의회가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회 부안군의회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가동

7일부터 9일, 전북 많은 눈...대설·한파 대응 위해 관계부서·유관기관·시군 합동 대책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01시 40분 도 내 3개 시군(정읍, 순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16시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행정안전부 주관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 이어, 관계부서·유관기관·시군이 함께 대설 합동 대책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전역에 걸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적설량은

10~20cm,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30cm~40cm 이상의 폭설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강풍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고, 10~30mm의 강수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비상근무 상황관리 ▲제설 및 한파대책 점검 ▲피해 현황 모니터링 ▲취약시설 안전조치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한 다양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대처 방안으로는 ▲실시간 모니터

링을 통해 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취약구간 및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제설제 중점살포 ▲습설대비 5대 취약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한 예방 강화 및 안전조치 실시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개방시간 확대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등이다.

특히, 지난 11월 중부지방 대설 시 발생했던 인명사고를 교훈 삼아,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사전 점검 및 주민 대피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체감기온 하락과 강풍으로 인

한 한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와 난방시설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북 서해안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제설작업과 적설 취약시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미끄럼 사고와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준수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소민기자



전북 백년포럼, '데이터가 바꾸는 미래는?' 개최

“데이터 중심 패러다임 변화 속 혁신적 조직문화 필요”

데이터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미래에는 전북이 가진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불확실성 속에서 상상하고,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연결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연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첫 ‘전북 백년포럼’(제22강)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가 바꾸는 미래는?’을 주제로, 데이터가 중심인 사회로 변화해가는 현시점에 데이터 생태계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연결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연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 백년포럼 22강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했으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송민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경영평가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

지속가능 공공가치 창출 위한 경영평가 기본계획 확정...평가결과 검증체계 강화·등급결정방식 등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2024년 실적)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경영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영평가 기본계획은 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 후속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가 대상기관은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보조기관 6개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에 준해 경영효율화점검을 실시할 예정이

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도의회 경영평가 결과보고 과정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평가결과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검증체계 강화·세부점수 대외 공개·평가등급 결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2025년 경영평가 기본계획에 담아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평가검증단 단원과 출

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까지 경영평가 결과 총점과 등급을 공개했으나, 2025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 세부점수를 대외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평가등급 결정방식도 개선했는데, 그간 기관 성격에 따라 I유형(경제·산업) 기관과 II유형(사회문화·복지) 기관으로 구분하

고 유형에 따라 등급별 기준점수에 차등을 두었으나, 올해 평가부터 I유형·II유형 기준을 통일하고 기관의 경영평가 수행능력을 고려한 기준(92점 이상 'A'등급, 등급별 5점 간격)을 설정했다.

경영평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업·출연기관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이춘석 의원, 소방공무원 안전·건강 보장 근거 마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약 1,500명에 달했으나,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해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관 보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며 ▲소방공무원을 상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서울=김명목기자

‘쌍특검법’ 재표결...여당 부결 유지·야당 부결되면 재발의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실시키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7일 쌍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을 당론으로 확인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부결되면 재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쌍 특검법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

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며 부결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배경은 특검 추진과정에 철저히 여당이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사 범위로 인해 위헌·위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검 추천과정에서 여당은 완전히 배제됐고, 정치 브러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포함된 김여사 특검법에는 명태균씨와 관련된 여권 인사들의 무차별적인 수사가 포함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면서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은 만큼 이태표가 최대 8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

결되면 재 발의를 통해 기필코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8개의 법안 중 우선 내란특검부터 처리하고, 다음으로 김여사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압박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된 가능성 표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충족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셋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을 통해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규 기능

성 소재를 발굴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특구 사업자를 모집해 24개 기업과 기관을 선정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미래 농식품 혁신, AI·빅데이터 활용 실증사업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 주민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주요 계획(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분야의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 등을 구체화해 ‘전

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구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 식품 적용 실증,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AI와 빅데이터

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 등 3대 실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일반 식품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통해 현재 29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차별화

본사 내방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

<2025년 1월 7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 하세요.



기상예보와 교통정보 확인



차량 수시로 점검
(타이어 상태확인, 안전장치 장착 등)



감속운전, 서행 운전
(특히 다리 위, 고가도로, 터널)



차 간 거리 2배 이상 유지
(앞차 타이어 자국따라 운전)

강한 경제 전주, 농식품기업 성장 지원 강화

전주시, 농식품기업 지원...총사업비 8억400만 원 투입해 3개 분야 7개 사업 추진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지역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특히 시는 최근 혼란스러운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을 이겨내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자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식품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도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올해 ▲전주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한 품질의 가공식품 생산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업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총 8억400만 원을 투입해 농식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공시설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가공식품 상품화 등 3개 분야의 총 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농식품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 및 스마트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각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케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첨단화와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추진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기업 의견을 반영,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보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농식품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해 R&D·경영·홍보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대학, 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전문 멘토단을 구성해 농식품 역량강화 교육과 1:1 멘토링 지원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지역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여기에,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전시·홍보관인 '전주맛배기'를 활용해 총 10개 농식품기업을 선정하고 월별로 1개 기업에게 시식·체험 행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 전주 기업 브랜드 홍보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시는 지역 내·외 규모 있는 박람회 등 전주 농식품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석진 전주시 동지사협 연합회장 취임

35개 동 연합회, 정기총회서 제4대 동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전주시를 신바람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전석진 제4대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이 취임했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5개 동 연합회는 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4대 동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평화2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인 전석진 회장이 전주시 동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35개 동에서 560여 명의 위원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전석진 연합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임원진과 함께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정과 소통하면서 틈새 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동네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돕는다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존 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원까지 확대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전주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임신·출산 가정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통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건강인 임신과 출산 지원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기존 산부인과와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산모들의 산후 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이혼녀(미수육)를 포함해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

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한해 동안 시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출산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사업'을 지난해 4월 처음 시작해 9개월간 1171명에게 검사비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20세~49세 남녀 모두에게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 2023년까지 소득 기준에 의해 선별 지원하던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미수육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비, 선천성 난청검사의 의료비(보청기 포함)에 대해 지난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시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총 608명이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 1594명의 산후관리를 지원했으며, 산모 1510명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했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영유아 1750명을 지원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진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을 통해 492명의 영유아를 지원했다.

시는 또 정부의 난임 지원 강화 방침에 발맞춰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전체 난임부부로 지원 확대 ▲부부당 25회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출산당 25

회 지원으로 확대 ▲나이에 따른 시술비 차등 지원에서 나이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 지원 등이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653건이었던 시술비 지원 건수가 지난해 29% 증가한 213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58명이 임신에 성공해 시술 횟수 대비 16.7%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난임 시술 전 필수적으로 받는 자궁 및 난관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의 검사비를 260명에게 지원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새해에도 임신·출산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대되는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풍남학사 전주·완주 입사생 43명 모집

24일까지 전주·완주 출신 대학생 대상 선발

인재 양성의 요람인 전주시 서울장학숙 전주풍남학사(소장 장은경)가 2025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

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전주시와 완주군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신규입사생 43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정규대학에 진학한 전주시 또는 완주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가졸업자로,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학업성적(50점)과 생활 정도(50점) 등을 심사한 뒤 입사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가산점도 부여된다.

희망자는 전주풍남학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메일(69252881@daum.net),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비



봉길 48)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13일 전주시 누리집과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사생 선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지역 농업 발전·강한 경제 구현...농업인과 소통 나서

내달 말까지 농업인·품목별 단체 등과 현장서 시정 현안 소통 간담회 이어갈 계획

전주시가 지역 농업 발전과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해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7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 등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 농촌지도자연합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날 농촌지도자연합회를 시작으로 오는 2월 말까지 품목별 농업인과 유통 관련 단체,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전주지역 7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농업인의 권의 보호와 복지증진, 농업기술과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제안 등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8개 품목농업인 연구회에서는 새로운 품종 도입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과학영농기술 교육 등 정보 공유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색 미래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겠다"면서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 땀 흘리는 모든 농업인에게 감사드리며, 전주시



전주시가 지역 농업 발전과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해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같이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제 공덕 육용오리 농장, 도내 여섯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21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조종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조종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사육중인 육용오리 16,400수에 대해서는 7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5호(닭 34, 메추리 1) 2,329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

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바이러스 활동성이 강해짐에 따라 더욱 철저한 농가 단위 방역이 요구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교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A등급' 획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직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전주교육대학교는 미래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2024 교육과정 개발, 전문 입학사정관 채용 등 우수한 교직적격자 검증을 위한 노력과 모의수업 강화를 100% 실시 등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수업 적정 규모 강화 비율 ▲모의수업 실시 강화 비율 ▲교육비 환원율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주교대는 새로운 교육지원 체계를 개발하며,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완주경찰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나서

완주경찰서(서장 김효진)는 관내 52개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졸업식이 끝나는 내달 11일까지 건전한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7일 오전에는 봉서중학교에 방문,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한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예방활동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등 15여명이 참여해 홍보물(한책 등) 및 사이버도박·딤편제이크 예방 전단지 배부 하는 등 건전한 졸업식 문

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졸업식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일탈·비행·출입이 많은 청소년 밀집지역 순찰강화 등 선제적 대처로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축제인 한마당인 졸업식장이 건전한 뒤풀이로 얼룩지는 일이 없게끔 졸업식 문화가 형성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 동신산업, 남원에 등지른다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동신산업(주) 협약체결...103억 투자 올 상반기 공장 건축, 22명 신규 고용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친환경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동반성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남원시와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동신산업(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남원시청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오영운 동신산업(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동신산업(주)은 남원일반산업단지 21,802㎡ 부지에 103억 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장을 건축하고, 기계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2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동신산업(주)은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문 업체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다.

특히, 광주 기아자동차의 EPP 전체 물량을 자체 공급할 만큼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역별 EPP 공급 업체들의 잇단 폐업 속에서 동신산업은 오히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내 최대 독점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또한, 친환경 해양 부력재 생산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해수부의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 도전, 물류비 절감과 더불어 해양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신산업(주)은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남부지방 EPP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자동차 산업을 넘어 해양 부력재 산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국내 최대 EPP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여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한 만큼 동신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남원시와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동신산업(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기업 성공을 약속합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동신산업(주) 투자 2025. 1. 7.(화) 남원시청 회의실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제품구매 독려

오는 13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대상 교육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자 전북지역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5년 공공구매제도 및 구매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각 소관부서에서 공공구매제도 및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평소 담당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안태용 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포함한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이 힘이 되어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오는 27일까지 제조·가공, 통신판매, 유통업체 집중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1.29.)을 앞두고 6일부터 27일까지(22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쌀,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 소비급증,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점검한다.

먼저, 6일부터는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정보를 수집·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3일부터는 도시중심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업체를 살펴보는 등 효율적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33명)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도 사이버단속반에 MZ세대 명예감시원이 중점적으로 활동하여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농업·농촌 변화 혁신 이끌어 미래세대 희망으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농업인 단체장 초청 신년 간담회 개최...청·농업인 단체 간 상생·발전 방안 논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6일 오후 본청에서 주요 농업인 단체장 초청 신년 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농업인 단체 활동계획과 건의 사항 등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강현욱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전병설 한국4·에이치(H)본부회장, 류진호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장이 참석해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청·농업인 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 청장은 "농업인구 고령화, 농촌 소멸 위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심화로 농업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첨단 기술과 농업의 융합은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라며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화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학습단체장 신년 간담회'를 열고 농업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 권 청장은 올해 농촌진흥청이 주력하는 '농업연구개발 혁신 방안' 14개 과제를 소개하며 농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고품질 연구 성과를 창출, 보급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덧붙여 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며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농업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초청 강연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 강연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을 초빙해 6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건설시장 안정화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내외 경제 불안과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내수 경기의 주요 중심축인 건설 투자 감소 및 건설 고용침체 속 건설시장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실장을 초빙해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내수 경기와 건

전북농협, 대설 및 한파 대비 현장점검 실시

김제시 광활면 감자 생산농가 찾아 시설물 및 작물상태 점검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7일 전북 김제시 광활면 감자 생산농가를 찾아 대설 및 한파 대비해 시설물 및 작물 생산상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북지역은 오는 10일 오전까지 도내 전역에 10~20cm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해안 및 남부내륙지역에는 3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어 눈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9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이 -12~-7℃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농협은 특보 해제 시까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및 보고체계를 철

저히 유지하고 계통사무소 대상 대설·한파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 관리요령을 조합원에게 전파했다.

특히 관내 노후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협관내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해 피해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전북농협도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인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 및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중수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대부분 발생농가,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지 않아...방역 미흡사항별로 살처분 보상금 엄격하게 감액 적용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24건)과 겨울철 새 서식 현황(12월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 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

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중수분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참고로, 이번 동절기 발생농장 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이 마련된 1개 농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될 것으로 평가되었

고, 이와 더불어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2건)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

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 신년 기자회견... 학력신장 · 책임교육 ‘투 트랙’ 제시



“학력신장은 더 과감하게... 공교육의 책무성 확실히 높여겠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7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에 이어 학력신장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실히 높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이후 해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10대 핵심과제도 올해는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투 트랙으로 제시했다.

학력신장은 ▲독서·인문교육 확대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지원 확대 ▲진로·진학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6가지를 핵심과제로 잡았다.

독서·인문교육은 학력의 기초인 문해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습 부진 요인으로 문해력 취약을 꼽는 지적이 많다”며 “지난해 효과성이 입증된 ‘아침 10분 독서’를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미래형 학교도서관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업 혁신은 ▲개념 기반 탐구수업 ▲AI 디지털 활용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 등 교사들의 연구와 교류, 연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북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CBT: Computer-

based Test)을 구축해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관리하는 등 교과학습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특성화고 취업에도 공을 들인다. 특성화고와 기업을 매칭해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와 ‘취업맞춤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 현장실습에 더 많은 기업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종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해 실습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에 거점형·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고, 1000명의 전문직업인 진로멘토단을 꾸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등 진로·진학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장 책임 민원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회복조정 지원단과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공교육을 강조하는 책임교육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특수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교육협력 등 4가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서 교육감은 “공교육의 책무성은 안전한 학교생활, 늘봄,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건강한 급식 제공 등 학교 교육 전반을 책임있게 살피는 것”이라고 책임교육 핵심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ESG 실천은 학교별 생태전환 프로젝트 운영, 연

4회 자원봉사의 날 운영, 일회용품 청내 반입 금지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인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도 강화한다.

특수교육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40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한다.

다문화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부모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부모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교육을 확대한다.

교육협력으로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며 “교육으로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이 현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정책 기조로 삼아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며 “학력신장과 함께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실히 높여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고, 누구도 교육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주용화초 10분 독서



▲유화학교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



▲인권주간 캠페인



▲국제교류 전시회



▲수곡초 전북미래학교



▲미래교육원규원 연구학교 운영



▲청명초 통합교육협력모델



▲수업혁신 교사상



▲학교폭력예방 연구



▲전북학생 시 페스티벌



▲한국치즈과학고 학생들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 주의!

눈과 비로 인한 빙판길, 안전하게 보행 하세요

1

평소보다 보폭을 좁게
중중 걸음으로 걷기

2

미끄러지지 않도록
굽이 낮은 신발 신기

3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장갑 끼고 걷기

4

신발에 눈이 묻었다면
털어서 다시 신기

‘미래를 여는 고창’, 새해 업무추진 시동

고창군,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77개 핵심관리사업·127개 주요 업무계획 논의

고창군이 심덕섭 군수 주재로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실현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새해 업무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는 실·관·과·소별 새해 추진 전략, 77개의 핵심관리사업 및 127개 주요 업무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25년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고창군 주요 핵심관리사업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국가계획 반영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신활력산업단지 첨단ESG 기업유치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사시 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고창(호남권)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고창꽃정원 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고창군은 주요 핵심관리사업의 원활



고창군이 심덕섭 군수 주재로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실현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새해 업무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시로 관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방향의 속도감 있게 정립하고, 군정목표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해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를 개최해 공약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신규 전통시장 인정구역 지정

요촌동 박약국 앞 거리 지정, ‘김제중앙시장’으로 정해...130여 개 점포 해당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요촌동의 박약국 앞 거리가 신규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요촌동의 박약국 앞 거리 신규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시장 인정구역 지정은 김제전통시장 인근에 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돼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 및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진행됐다.

해당 시장이 김제의 중심부에 위치해, 상인회 측에서 신규 전통시장 이름을 ‘김제중앙시장’으로 정했으며, 박약국을 중심으로 시장통 버스정류장 앞, 김제초등학교 앞, 김제통신 앞 거리 일원까지 T자형 구역의 130여 개 점포가 해당한다.

시는 점포 수, 토지 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인정 구역 신청을 승인하고 공고했으며, 이제 소비자들은 김제중앙시장 구역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점포에서 결제 금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김제중앙시장을 신규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이라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지난해 고창사랑기부금 7억여원...지역발전에 투입

2024년 고창사랑기부금 6억9397만원, 동학홍보관·교육지원사업 등에 사용

지난해 고창군의 고창사랑기부금이 7억여원 가까이 모이면서 지역발전 사업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창사랑기부금을 통해 총 6억9397만6000원을 모금했다. 모금방법별로는 온라인(고창사랑 E음) 5억5361만4000원, 오프라인(농협 창구 등) 모금액 1억4036만2000원이다. 이는 기부제 첫 시작해인 2023년 대비 약 7.7% 늘었다.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가 724건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보여줬다.

기부자에게 제공된 답례품도 1억4996만9330포인트(10만원 기부시 3만 포인트 지급)에 달했다. 인기 답례품에는 고창쌀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고

창사랑상품권, 고창풍전장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기존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학농민혁명 홍보관(공유면 옛 신용초 부지)은 사업비 4억9000만 원을 들여 고창군 한 중심(전북준 장군 동상 옆)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다.

또 ‘행복누리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쓰이면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학습, 예체능, 정보화 등에 폭넓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연말부터 지정기부가 가능해지면서 고창군 고창사랑 기부제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

다. 1월6일 현재 영선고 야구부 지원에 2239만원, 고창 꿈나무 해외연수 지원에 1526만원이 모금중이다.

기부는 연말(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반영해 비수기(4월~9월)에도 기부 독려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고창사랑기부금에 참여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농산물 판매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등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젊음과 열정으로’ 부안청년회의소, 신년 인사회 열어

부안청년회의소(회장 신정우)는 지난 6일 부안컨벤션웨딩홀에서 ‘젊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는 부안청년회의소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는 지역의 각급 기관·사회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상견례 및 덕담을 나누고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각 읍면리, 부안JC 특우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부안군 및 JC 홍보영상 시청, 개최 및 국민의례, 신정우 신임

회장과 김정기 특우회장의 신년사, 권익현 군수의 우수회원 공로패 수여 및 신년인사, 부안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세배와 주요 내빈 축하떡 커피팅식 및 축배 순으로 진행됐다.

부안청년회의소 신정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새해를 맞이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부안청년회의소는 부안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바쁜 일상에서도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부안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2025년도에도 지역의 소외계층 등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한 뜻깊은 봉사를 펼쳐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와 국내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주변의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를 실천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만경능제근린공원 새단장

노후 시설물 어두운 분위기 개선 등...새해 맞이 재개장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새해를 맞아 만경능제근린공원의 정비와 재개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단장한 만경능제근린공원은 능제저수지 옆에 자리해 시민휴식공간과 각종 행사 등이 열리는 곳으로 그간 조성한지가 오래됨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과 어두운 분위기의 개선을 위해 시는 지난 한 해동안 전체적인 공원의 정비를 추진, 완료했다.

시는 우선 화장실 리모델링 공

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했으며, 화장 재정비 및 야외무대 설치를 통해 각종 행사나 공연이 원활하도록 공간을 재생했고, 노후된 데크시설을 보수해 안전한 산책환경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만경능제는 도시민들이 저수지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하고 산책하기에 적합한 관광지원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만경능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국가와 고창 발전 기원’, 신년 조찬기도회 열려

고창군과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가 고창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주경만 목사) 주최로 7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조찬기도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과 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고창군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성식 목사와 건진호 목사는 각각 ‘고창군 발전과 안녕을 위해’, ‘나

라와 민족을 위해’라는 주제로 특별기도를 인도하며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또한, 고창군 기독교연합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체육회, ‘2025 스키캠프교실’ 참가자선착순접수 진행

김제시체육회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2025 스키캠프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스키캠프교실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덕유산리조트에서 진행되며, 동계 레포츠를 통한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학업으로부터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 모집기간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관내 초등학교 10세 이상 13세 이하(2024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를 대상으로 30명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장소는 김제시체육회 사무국(김제시 민운동장 내)에서 선착순 접수이지만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을 우선순위로 접수하며, 주민등록 등본 1부를 지참하고 방편해 참가신청서 작성 후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gimjesportal.or.kr>) 또는 김제시체육회(063-548-7330)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오는 10일까지 겨울 독서교실 운영

부안군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겨울 독서교실을 지난 6일 개강하고 오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군립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마음 여행’을 주제로 나와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알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책을 통해 더 건강한 정서발달과 관계 맺기, 소통에 관해 이야기하고 즐거운 경험 쌓기 시간을 갖는다.

‘안돼’, ‘아 진짜’, ‘호랑이 생일날이려다’, ‘자유낙하’ 등의 다양한 책을 읽고 콜라주로 나 표현하기, 입체 카드 만들기 등 이야기 연결하기 등 다각적인 독후활동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참여 학생 25명 중 우수 학생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과 군수상(발표, 협력상)을 수여받게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독서교실에 참여한 저학년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책임감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동진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과 떡국 나누며 신년 인사나누

부안군 동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명숙)는 7일 동진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맞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 사회단체 회장님 250여 명에게 직접 끓인 떡국과 차를 대접하며, 한 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숙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모든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했다”며 “새해 첫 행사에 많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자 동진면장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번 행사를 위해 힘써주시는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올해 새해, 동진면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어촌육성 용자지원...농가당 최대 2천만원

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농어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확충과 영농안정화를 위해 ‘농어촌육성 용자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육성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저금리로 용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림어업축수산업 종사자 341농가에 38억 19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기준 현재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림축수산업

에 종사하는 자이며, 비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자조건은 연이율 1%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농가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추후 군은 접수 후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 검증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통해 2월 중순부터 용자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자립 영농기반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며, “고창군의 주 산업기반인 농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장수군 천천면, 2025년 을사년 새해 맞이 시무식 개최

장수군 천천면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7일 천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시무식에는 이현원 면장을 비롯해 28개 마을 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향한 합작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은 개회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면정시책 및 현안사업 설명, 신입이장님 임명장 수여, 이현원 면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원 면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을사년 군정표어가 '개신창래(開新創來)'인 만큼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는 자세로 장수군과 천천면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하수도사업 국비 37억 확보

진안읍·정천면·백운면·마령면 등 4개 읍면 6개 마을 대상 하수처리구역 확대 추진

진안군은 금강 및 섬진강 수질개선과 마을 공중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백마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3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정백마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진안읍(활인동, 개실), 정천면(갈거), 백운면(화산, 번덕), 마령면(원동촌) 등 4개 읍·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하수관로 L=8.2km, 배수설비 143세대 설치 등에 국비 37억원을 포함한 총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마을들은 수년 전부터 공공하

수도 연결을 희망해왔고, 그 필요성이 있어 군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산악지형으로 인해 공공하수도와 원거리에 위치해 경제성 등의 이유로 그간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어려웠던 지역이었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2022년까지 기초조사 실시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군청 실무자들이 함께 주변 하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의 의지를 적극 설명한 결과 2023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24년 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자들이 전북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를 수시 방문한

결과 2025년 국가 예산이라는 값진 결과를 확보했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와 섬진강의 수질개선은 물론 환경 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의 환경 및 정주 여건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하수처리구역 확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원활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공공 하수도는 군민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적극행정 '으뜸' 임실군, 표창 9관왕 달성

2개 기관 표창·담당 공무원 6명 유공 표창 받아

임실군이 지난 한 해 동안, 1개 팀에서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 적극행정 분야에서 개인·기관 표창 9관왕을 차지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이뤄냈다.

정 팀장은 팀원들에게 항상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경제교통과 근무 시 팀원이 임실 전북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2개의 기관 표창과 담당 공무원 6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임실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개인 표창으로는 주택·건축업무 유공 여주희 주무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유공 박문영 주무관, 공공지원인 진흥 유공 정영 주무관, 도시재생 유공 이준영 주무관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와 더불어 김경록 주무관이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추진 유공을 인정받아 전북특별

자치도 감사장을 받았다.

정일범 팀장은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에서 검증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다.

정 팀장은 팀원들에게 항상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경제교통과 근무 시 팀원이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2개의 기관 표창과 담당 공무원 6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임실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개인 표창으로는 주택·건축업무 유공 여주희 주무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유공 박문영 주무관, 공공지원인 진흥 유공 정영 주무관, 도시재생 유공 이준영 주무관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와 더불어 김경록 주무관이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추진 유공을 인정받아 전북특별

/임실=정해영 기자



장수군, 24일까지 동계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오는 24일까지 2025년 동계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맞은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최훈식 군수와 대학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대학생들은 사회체험에 들어갔다.

군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관내 지역아동센터, 읍·면사무소, 행복나눔터 등 다양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높은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최훈식 군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이 소중한 경험을 얻고 성장하길 바란다"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 근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몰', 매출 8억원...연매출 200% 성장

지역 농민 협력·판매상품 다양화·혁신적 마케팅·홍보전략 큰 성과 거둬

장수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이 지난 2024년 역대 최고 매출액인 8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기존 연간 1~2억원에 수준에 머물던 매출을 2023년 4억원, 2024년에는 전년대비 2배에 가까운 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0%에 가까운 큰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수몰'은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장수지역 농민들과의 협력, 판매상품의 다양화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역대 최대 매출 성과를 거뒀다.

먼저 군은 판매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유선 및 대면 방식으로 적극적인 신규 입점 모집을 추진했다.

기존의 대표 품목이었던 사과, 토마토, 오미자, 한우 외에도 사인머스켓, 까막돼지, 장수사과파, 떡, 계란, 장미, 산

양유 등 총 25개 업체, 40개 품목이 새롭게 입점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

특히 2023년부터 김장철을 대비해 절임배추를 입점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했고 올해 장수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된 '김장 체험 행사'에서는 장수몰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판매에 힘입어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에 장수포인트를 도입해 소비자 만족은 물론 매출 증기를 동시에 이끌었다.

또한 홍보 전략 측면에서도 과감한 변화가 있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오프라인 판촉행사에서도 장수몰 전단지 배포하며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몰의 성공은 장수 농특산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



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장수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몰은 설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전품목 25% 할인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해 소비자가 장수군만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촌크리에이티브어 선정...2억5천만원 확보

농촌 관광·경제 활성화 목표...당일형·체류형 상품 구성, 지역 생활 인구 유입 도모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농촌 관광 시대를 여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크리에이티브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크리에이티브어 사업은 기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관광경영체, 여행전문

가(여행사), 청년 등이 협업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농촌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관광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 관광 민간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협력체(운영조직) '임실오실'은 대표법인으로 (사)임실지역활력네트워크사업단이 중간지원조직을 맡고,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네트워크가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관광상품은 당일형 상품 4가지와 체류형 상품 1가지로 나뉘어, 방문객들은 당일 여행 또는 1박2일 체류형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당일형 상품은 '치즈맛보寶', '섬진강가寶', '옥정호보寶', '농악즐거寶' 등 4가지, 체류형 상품은 '촌장스하寶'로 구성돼 있다.

군은 '2025년 임실방문의 해'를 맞이해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농촌크리에이티브어 사업을 통해 농촌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정해영 기자



진안군, 금연·절주 실천 교육 적극 나서

효과적 실천 위해 운동 연계 등 참여형으로 진행

진안군이 새해를 맞아 군민들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먼저 지난 6일 안천면 보한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내달 18일까지 40개 읍·면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금연·절주실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농한기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는 경로당을 방문해 흡연의 폐해,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절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연·절주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운동을 연계해 실시하는 등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그 밖에도 진안군은 신년을 맞아 다시 한번 금연과 절주를 마음 먹은 이들

이 그 결심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관련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흡연·음주예방 뮤지컬, 이동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건강교실 등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금연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한 군민 모두가 원하는 목표도 성취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민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뜻 모아

황인홍 무주군수, "세계 유일 태권도원, 2036 하계올림픽을 더욱 특별하게 할 것"

2036 하계올림픽 후보 도시 현장 실사가 지난 7일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태권도 시범 공연 등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무주군 초·중·고등학교생들로 구성된 태권도시범단을 비롯한 8백여 명의 군민이 동참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열기를 더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

정을 위한 현장 평가 브리핑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 종목에 주안점을 두고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해 관심을 모았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의 본향"이라며 "무주에 자리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태권도원이 2036 하계올림픽을 더욱 특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권도원의 완벽한 시설과 대회 운영 노하우, 인지도를 비롯한 세계 태권도인들의 신뢰가 든든한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황 군수는 "무주가 '태권시티'로서 특별한 접근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소방서, 화재취약 시설 안전점검시행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겨울철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동절기 화재 예방 대책 강화"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낮은 기온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다른 어느때보다 높아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 취약 시설 등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강화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주택 화재예방 관계자 교육 ▲농촌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점검 ▲소방관시장 현장방문행정 ▲화재예방기동순찰 등이다.

김상곤 임실소방서장은 "동절기 화재 예방 대책 강화"를 통해 모든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정해영 기자



(주)티앤제이건설, 완주군에 지역사랑 상품권 1천만원 기탁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고태유 티앤제이건설(주) 회장, 김지혜 사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지역사랑상품권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2023년 가입한 대한적십자사 고객기부자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완주군은 관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사용 할 예정이다.

고태유 티앤제이건설(주) 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티앤제이건설(주)은 고태유 회장을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관내 위기가정 지원금 기탁, 백미 기부, 라면 기탁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문창초등학교-파랑새지역 아동센터,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군산문창초등학교(김은경 교장)와 파랑새지역아동센터(김복순 센터장)는 지난 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미성동행정복지센터에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했다.

문창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중고장터를 운영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으며 파랑새지역아동센터는 자체 아나바다장터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두 곳 모두 이번 기부를 통해 소속된 학생(아동)들이 다 함께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가치 교육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복순 파랑새지역아동센터장도 "매년 해마다 기부활동을 해 오고 있다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눔 수익금이므로 현장의 기쁜 기부와 소비문화가 고스란히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미성동 복지허브기금에 예측돼 미성동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순창군 소프트테니스 실업팀, 신규선수 임용식

지역 출신 선수 대거 영입, 전략적 결정 평가...신규 선수 5명에 임용장 수여

순창군이 소프트테니스 실업팀에 지역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새로운 동력을 더했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신규 선수 임용식을 개최했으며, 이날 임용식에는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 선수단과 전북특별자치도 소프트테니스협회 박경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신규 선수 5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팀원으로 합류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순창군이 소프트테니스 실업팀에 지역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새로운 동력을 더했다.

이런 영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학생 출신 선수를 대거 발탁한 점으로, 이는 지역 전문체육의 진흥을 목표로 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 스포츠 산업과 지역사회가 더 큰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선수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이름을 빛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익산산림조합, 디어로움 나눔공간에 1,000만원 기부

산림조합 5,000여 명의 조합원-준 조합원 마음 모아 마련...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물품 구매에 활용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조합장 김수성)이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디어로움 나눔공간에 기탁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구매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수성 조합장은 "산림조합 5,000여 명의 조합원과 준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익산산림조합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소중한 성금은 나눔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성껏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산림조합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기탁 노력하고 있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익산=최준호 기자



장수군 산림조합, 장학금 500만원 쾌척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7일 장수군 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상대 조합장은 "장수군 관내 학생들을 지원하는 길이 미래의 장수를 밝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을 통해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훈식 이사장은 "7년 연속에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산림조합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장학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장수군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산림조합은 임업분야 전문인력인 산림경영지도원 구비를 바탕으로 임업기술지도,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컨설팅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 임업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여강스님, 남원시에 백미 20포·라면 30박스 기부

남원시 산내면에 소재한 삼화선원(주지 여강스님)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킬로 20포, 라면 30박스(143만원 상당)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삼화선원 여강스님은 "이번 기부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

겠다"고 전했다.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이성근 면장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물품을 기부해 주시는 여강스님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여강 스님은 해마다 설, 추석 명절에 관내 이웃들을 살피는 백미 나눔 기부 행사를 올해로 11년째 실천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군 흥덕면 우체통서익명의 기부성금 271만원 발견

고창군 흥덕면 우체국 앞 우체통 앞에서 뜻밖의 선물이 발견됐다. 편지봉투에는 현금 271만원과 손편지가 남겨져 있었다.

편지에는 "흥덕 면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면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어려운 면민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흥덕면장은 이번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충호 흥덕면장은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익명의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소중한 기부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주)한삼코라, 김제시 희망나눔 캠페인 참여...6백만원 상당이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한삼코라(대표 조민수)가 겨울 이불 100세트(600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조민수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겨울 이불을 준비했다"며, "추운 겨울이 힘든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삼코라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해주신 겨울 이불은 난방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삼코라(주)는 30년의 업적을 자랑하는 수처리 설비 전문 제조기업으로, STS 라인, 물탱크, 여과기, 재업 투입 장치 등을 생산하며 7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해 우수 제조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관내 저소득가정을 위해 600만 원 상당의 즉석 삼계탕 600개를 기탁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한국석면안전협회, 부안군에 100만원 기탁

(사)한국석면안전협회(호남권지역본부장 박광수)는 지난 6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박광수 호남권지역본부장은 "부안군 반값등록금 지역사업이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매년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후원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장학금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잘 쓰일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면안전협회는 주거환경 개선과 석면 공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앞장서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4가지방법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드라이기로 약하게(50도 미만) 설정후 녹여 주는 방법이 좋아요

1.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를 잘넣고 뚜껑을 밀폐

2. 옥외 화장실, 외부에 노출된 배관에 보온재를 풍풍 묶기

3. 장시간 외출시, 수돗물을 매우 약하게 틀기

4. 동파방지열선 구매해서 활용하는것도 예방에 도움

〈一事一言〉



윤석열은 왜 '비상대권'이 필요했을까?(2)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선관위 서버 점검을 받았고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음도 밝혀졌다. 실제로 2023년 7-9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이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뚫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백종욱 국정원 3차장도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이렇게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윤석열은 지금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임피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라며, 끝까지 억측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0.7% 차이로 이겼지만,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더 많은 차이로 이기지 못했다'는 게 불만이다.) 그러나 실제 본심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것을 '국회 해체'를 통해 전복하려는 것! 이것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의 실체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론과 특전사 국회 침투

가 맞물린다. 즉,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입단(특전사 대테러군)과 1공수여단 군인들이 특수 임무를 띠고 침투했다.

윤석열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을 통해 지시한 말들, "아직도 못 들어갔어?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짜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다 집어내라." "본청 내부에 진입한 특전사를 계속 진행해." 등을 보면, 부정선거론과 국회해체론이 바로 연결된다.

과연 이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할 말인가? 눈과 귀가 의심된다. 이렇게 스스로 근거 없는 상상을 해놓고, 선관위를 털어 부정선거의 증거를 만들려 한 대통령, 그것을 위해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대통령, 그의 내란은 결국 '내란'이었다!

의학자나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인간 뇌의 전두엽이 파손된다. 전두엽은 이성적 분별력, 신체적 균형을, 언어적 표현력 등 인간적 역량을 관장한다. 따라서 전두엽이 훼손되면 이러한 고도의 정신 작용이 망가진다. 결국, 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혼란한 상태가 된다. 바로 이게 '내란'이다. 즉, '12·3 내란'을 유발한 건 결국 윤

석열의 '내란' 탓이었다.

물론, 최근 사태는 '뇌 과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뇌란은 알코올 중독, 권력 중독, 재물 중독과 연결돼 있고, 윤석열 결의 인적 네트워크, 특히 윤석열을 낳은 국힘당 조직과 연결돼 있다! 결국 현 사태는 결코 단독 범행이 아니다. VIP로 통하던 김건희조차 그 '내란'을 방조, 묵인함으로써 조장했다. 오히려 '통일 대통령' 망상에 내란을 적극 '이용'했다. 김용현, 한덕수 등은 물론 국힘당 역시 '자본주의 통일 한반도' 망상을 공유했을 터!

A. W. 새프의 중독이론에 따르면(중독 조직), <중독 사회> 등 참조, 중독자 곁에는 늘 동반중독자(들)가 있다. 동반중독자가 박수 치지 않으면 중독자는 시들해지는데, 역으로 동반중독자(들)의 호응이 많으면 중독행위가 지속, 심화한다. 나중엔 누가 중독자이고 누가 동반중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윤-김 부부와 김용현, 황교안, 국힘당, 권력지향 관-검사와 변호사, 보수(극우) 언론과 종교 등이 한 패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내란'은 '내란 조직'으로 발전한다. 마침내 시스템 전체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생각하고 행위 하는, '중독 시스템'이 탄생한다. 중독 시스템의 특성은 ① 자기중심성과 피해의식 ② 거짓말(부정) 다반사 ③ 통제(조작) 만능주의와 완벽주의 ④ 꼬리 자르기 위기를 위기로 뛴기, ⑤ 책

임 전가(투사) 등이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 부부의 '내란'이 없었다면 '12·3 내란'은 연감생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야 정상이었을까? 사실, 윤석열은 짧게는 2024년 3월부터, 멀리는 검찰 시절부터 '비상계엄'을 종종 들먹였다. '내란'의 뿌리가 꽤 깊은 셈! 그럼에도 정상적 국가 경영이었다면 어떠한 했는지 상징적인 세 측면만 보자.

첫째, 여소야대 국회의 지형에 서려면, (오히려 여당이 견제할 자제로 접근해)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는 게 옳았다. 여야 회담에서 '민생과 나라 발전'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고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실행에 옮겨야 했다. 그간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한 각종 개혁 입법들이나 민생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도 당리당락을 떠나 '민생과 나라 발전'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을 했어야 옳다. 특히, 농민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한계와 문제도 있지만) '민생'을 위해 실시해야 옳았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도내 서부권과 동부권 균형발전 해법 찾자

전북자치도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서부권, 특히 새만금 일대에 집중된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 지역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전북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동부권 주민들의 불만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대한 자연스런 불만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과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부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동부권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의 잠재력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장수, 진안 등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 조성과 더불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부권을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동부권의 산지를 활용한 임부산물과 농업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이들 지역은 농업 및 임업이 주 산업이지만,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휴양과 위케이션 시설 등을 개발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해서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야 한다.

동부권역의 교육 및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문제다. 지역 주민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지를 통해 청년층이 동부권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 및 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동부권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동부권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부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북이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에서 소외지역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동부권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부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산지 자원화와 관광산업, 농업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동부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전북자치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기서 강학당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교육문화, 서당
-지정일 - 1981년 4월 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9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법원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바람 잘 날 없으라 / 박노해

바람 잘 날 없으라
내 생의 길에
온 동지가 흔들리고
뿌리마다 사무치고
아 언제나 그치나
한 고비 넘어면 또 한 고비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싸워야 하나
바람 잘 날 없으라
울지 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푸르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주경야독하며 선린상고에서 수업을 들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밀리언 셀러가 됐다. 이후 '얼굴 없는 시인'으로 알려지며 시를 발표하고 7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했다. 1991년 국가보안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DJ정부 때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됐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육중 예세이 '사람만 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아름다운 자연 소중한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JBT 전북특별자치도 언론위원회 신신문

광고문의 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0 구독신청 063)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외국인 MZ도 반한 완주 로컬미식관광”

맛·쉼·달빛을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선보여... 완주형 로컬 미식 관광 잠재력 입증

정원과 뮤지엄을 품은 아원고택으로 유명한 완주군이 특유의 고즈넉한 매력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국내 로컬관광의 1번지로 불리는 완주군은 2024년 지역 특유의 매력과 감성을 담은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 팸투어를 통해 외국인 MZ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완주형 로컬 미식 관광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완주형 로컬 미식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확인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59.8%의 외래관광객이 식도락관광을 향한 고려 요인으로 선택,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국민여행조사에서도 국내 관광객의 21.3%가 음식을 중요한 여행지 선택 요인으로 응답했다.

해의 관광지에서도 현지 쿠킹클래스 참여와 현지 맛집을 경험하기 위한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로컬푸드 경험이 중요한 관광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완주군은 올해 맛과 쉼을 더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완주형 로컬 미식 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그 수요와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역특산물인 한우, 순두부는 물론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완주 곶감과 우리나라 최초의 생강 재배지답게 최고 품질의 생 로컬관광 1번지 답게 완주에서는 로컬푸드와 문화를 한자

리에서 즐길 수 있는 '와일드 & 로컬푸드 축제'를 개최, 올해 10개국 240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것은 물론 높은 만족도를 보여 글로벌 미식 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다.

특히 투어 사전참가 신청이 조기에 매진돼 완주형 미식 관광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완전한 맛, 완주에서 즐겨봐'를 주제로 한 미식관광 프로그램은 완주군의 숨겨진 '맛과 쉼, 그리고 달빛'이 어우러진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치유농장에서의 수확 체험과 맛을 결합한 '치유형 로컬 미식 프로그램'과 가을밤 달빛 아래 소양고택에서 즐기는 맛과 쉼을 주제로 한 '쉼, 고택투어'는 내국인은 물론 대만, 프랑스 등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프랑스 참가자는 자연 속과 고택이 어우러진 곳에서 로컬푸드와 독특한 체험은 오직 완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원고택



▲오성제저수지



▲아원고택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개최된 치맥축제를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SNS에서 주목받는 로컬 복합문화도시

완주는 최근 몇 년간 SNS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로컬 복합문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완주여행', '#아원고택' 등의 해시태그는 수만 건의 게시물을 기록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로컬여행·힐링 여행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완주만의 자연과 특유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인생샷 명소인 고택과 '힐'한 로컬 문화공간들이 입소문을 타며,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완주의 고택 스테이는 단순한 전통가옥 숙박의 개념을 넘어선다. 아원고택, 소양고택과 같은 복합 한옥 문화체험관은 전통의 보존과 현대적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아원고택은 한옥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주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200년이 넘는 고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객실과 뮤지엄에서는 정기적으로 현대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소양고택 역시 전통 한옥스테이에 더해 음악 감상과 독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경험을 제공한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완주 로컬문화관광의 핵심 축이자 랜드마크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양곡창고로 사용되던 건물들을 예술공간으로 재해석한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관, 실내의 공연장, 카페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지역 예술 작품과 특산품을 선보이는 보부상마켓 등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로컬 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2024년의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올해에는 '맛·쉼·달빛'을 테마로 완주형 로컬관광을 강화하고자 한다. '맛'의 미식관광, '쉼'의 힐링 관광, '달빛'의 야간관광 등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요소를 갖춘 테마로 로컬관광 1번지에서 체류형 로컬관광지 완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우리 군이 기존 로컬관광 1번지에서 완주 특유의 '맛·쉼·달빛'의 테마를 더해 누구나 좀 더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매일매일 성장하는 완주 관광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관광과 관련한 내용은 완주군 문화관광 누리집(<https://www.wanju.go.kr/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문화관광: <https://www.wanju.go.kr/tour/index.9is>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index.9is>



▲소양고택에서 펼쳐진 '별빛주막·소양정'에서 가을 밤의 낭만을 즐기는 참가자들



▲완주미식 팸투어에 참여하여 특산물 디저트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참가자들